

민주 광주·전남 대의원 대회 의미와 향후 전망

한지붕 두가족... '색깔 통일' 시간 걸릴 듯

시·도당 위원장 우리당 출신 차지 구 민주계 박탈·소외감 해소 관건으로

통합민주당은 1일 광주에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잇달아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에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 전남도당 위원장에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는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태명 동구청장 등 각 구청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정대철·정세균·추미애 등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9명 등도 참석했다.

이날 시당위원장 선출은 김 의원이 단독출마함에 따라 참석 대의원 700여 명의 추대 형태로 이뤄졌다.

신임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나 정파, 출신을 뛰어넘어 화합과 결속을 통해 힘 있는 시당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대의원 1

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주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주 위원장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대의원들의 깊은 뜻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통합민주당의 변화와 발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는 천정배, 이낙연, 김효석 의원을 비롯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종철 전남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당·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손학규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호남은 통합민주당의 땃줄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며 "광주·전남지역 대의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만행이 자행되는 80년대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간 상태로, 광주 5·18민주영령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정부의 쇄고기



통합민주당 전남도당 정기 대의원대회가 1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와 천정배, 이낙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종철 전남도의장, 대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대철, 정세균, 추미애 등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협상안은 미국만 바라본다면 버티던 영터리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국회등원과 관련 "무조건 등원하면 한나라당에 둘러싸여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며 "사전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해결책을 마련한 뒤 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결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모두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으로 채워졌으며 앞으로 구 민주계의 박탈감과 소외감 해소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구 민주계

는 대의원대회 개최 직전까지 '소수 계파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지방 대의원대회까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방 대의원대회까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등원론' 시각차

정대철, 원내의 병행 투쟁 추미애, 차기 지도부 일임 정세균, 명확한 표명 유보

통합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 후보는 1일 최고기 파동으로 꼬인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광주 센트럴광화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대철 후보는 "민주당은 원내의 병행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등원을 유보하자고 했는데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 뒤 등원해 병행투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수야당의 원내투쟁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은 언제나 소수인 만큼 국민의 뜻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등원문제는 차기 지도부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쇄고기 문제 해결'이라는 담보도 없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등원 시점에 대해서

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때가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안된 것 같다. 현 지도부의 판단에 일임한 전남 의원 총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당 대표 후보 이외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새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는 등 치열한 득표전을 펼쳤다.

김진표 후보는 "민주당을 정책정당·대안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으며 문병호 후보는 "민주당은 간판, 메뉴판, 주방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쇠신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 재집권의 설득 및 계획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고 박주선 후보는 "민주당 재건의 기수로서 호남과 대한민국의 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군환 후보는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당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상수 후보는 "중앙무대에 나아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안희정후보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으며, 문학진 후보는 "당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당내 민주화 확립을 통해 야당에게 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힘 있고 활기있는 시당 만들터"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통합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1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강한 야당을 광주시당이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계파와 출신을 따지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당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권리를 확대시키면서 힘 있고 활기 있는 광주시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인사 및 조직 관리, 당원 참여·권리 확대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막말과 큰소리, 단상 점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논리,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바로 잡고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 야당으로 바로 서야 한다"면서 "광주시당이 강한 야당의 비전과 희망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원들과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계파 치우치지 않고 당 화합 주력"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1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강하고 튼튼하며, 화합하는 도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먼저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의 계파갈등을 의식한 듯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당을 화합시켜 나가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한 것을 털어낸 뒤 빠른 시일 내에 전남도당을 재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나주 혁신도시와 무안 기업도시, J프로젝트, 광양항 개발, 여수세계 박람회 등 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전남도 사이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남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 등을 두루 지내 전남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낙후한 전남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심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승리는 물론 18대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며 "전남도당이 튼튼한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구 민주계 표심 어디로?

박상천 - 정세균 회동 결과에 주목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 민주계의 표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구 민주계의 박상천 대표와 당권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상천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구 민주계는 2일째 당 대표 후보군 가운데 최종 지지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 대의원 가운데 30% 가량을 점하고 있는 구 민주계가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설 경우, 경선 판도는 대변동이 불가피하다.

즉 구 민주계가 정세균 후보를 선

택할 경우, 결선 투표가 불필요할 정도로 대세론이 확고해지는 반면 추미애 후보나 정대철 후보 지지에 나선다면 선거 당일 대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단 당내에서는 구 민주계가 대세를 꺾고 경선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 민주계가 정세균 후보보다는 개혁 성향이 강한 추미애 후보를 전격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